

Current Status and Revitalization of Religious Education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Revised 2022 Curriculum: Focusing on Won Buddhism-Affiliated Schools

Seonghee Lee

Wonkwang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aims to propose measures to revitalize religious education by focusing on the transformation of the ‘Life and Religion’ course, under the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into an effective subject that helps students address real-life issues.

[Contents] The 2022 revised curriculum is characterized by its restructuring into a credit-based, elective-oriented system that allows students to complete courses and earn credits on a semester basis. As a result, all religion-affiliated schools in Korea now face at least two critical challenges: First, how can they harmoniously balance the guaranteeing of students’ right to choose subjects under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with the provision of religious education that reflects the founding philosophy of the schools? Second, how can they align the implementation of their founding ideals with the teaching of religious subjects based on national curriculum standards?

[Conclusions] This study presents four strategies for revitalizing religious education in schools: 1. Emphasizing character education, 2. Through the explicit (formal) curriculum, 3. Through the hidden (informal) curriculum, and 4. By reorganizing the curriculum. It questions the conventional model of religious education, which has been confined to religion-affiliated schools, in pursuit of more genuine character education for students. Furthermore, it calls for discussions on revitalizing the ‘Life and Religion’ course through a cooperative network of religion teachers from regional religion-affiliated schools, working together beyond denominational boundaries.

[Keywords]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Life and religion, Won Buddhism, Religious education, Religion teachers

* **Corresponding author** Seonghee Lee (Minister of Won-Buddhism, Wonkwang University)

E-mail : andante9790@naver.com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종교교육 현황과 활성화 방안: 원불교 종립학교를 중심으로

이성희

원광대학교 대학교당 주임교무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삶과 종교」 과목이 학습자들의 실생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실효성 있는 과목으로의 방향 전환에 주목하며 종교 교과 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내용]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은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학기 단위로 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한 점이다. 이로써 한국의 모든 종립학교는 적어도 두 가지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첫 번째, 고교학점제에 따른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과 종립학교 건학이념 실현을 위한 종교 교과 교육을 조화롭게 양립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두 번째, 종립학교의 건학이념 실현과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기반을 둔 종교 교과교육을 조화롭게 일치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결론] 본 연구는 학교 종교교육 활성화 방안을 네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한 종교교육 활성화 방안 둘째, 표면적 교육과정을 통한 종교교육 활성화 방안 셋째,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한 종교교육 활성화 방안 넷째,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종교교육 활성화 방안이다. 본 논문은 종립학교에서만 개설되었던 종교교육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학생들의 참다운 인성교육을 위하여 종립학교 종교교사들의 연대를 통해 종교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제안한다.

[주제어] 2022 개정 교육과정, 삶과 종교, 원불교, 종교교육, 종교교사

I. 서론

2022년 12월 22일에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제48조 및 국가 교육위원회 법 부칙 제4조에 의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발표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5 교육과정에서 종교 교과인 「종교학」은 「삶과 종교」로 교과명이 변경되고 이에 따라 교과 성격과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및 교수학습 평가에서도 변화를 보인다. 1997년 12월 30일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로 발표한 7차 교육과정 이후 2015년 교육과정은 기존 교육과정과 확연히 다른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었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2025년 3월 1일부터 적용을 받는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는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명시하고 학기 단위로 과목 이수와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선택과목의 증감 범위도 개선하여 학생이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라 할 수 있다.

문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로 인해 종교 교과를 선택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한국의 모든 종립 학교에서는 해결해야 할 두 가지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는 점이다. 첫 번째는 고교학점제에 따른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과 종립 학교 건학이념 실현을 위한 종교 교과 교육의 조화로운 양립의 문제다. 두 번째는 종립 학교의 건학이념 실현과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기반을 둔 종교 교과교육의 조화로운 일치의 문제다.

본 연구는 2015 교육과정에서는 학문적 차원의 객관적 종교교육(education about religion)을 중심으로 한 ‘종교학(宗敎學)’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삶’이라는 단어로 대치된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종교 교과명인 「삶과 종교」는 학습자들에게 실생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종교 교과 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위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기 위해 먼저 2022 개정 교육과정(Ministry of Education, 2022)과 「삶과 종교」 교육과정 개발과 주요 사항 전반에 대한 검토에 관한 연구(Kim, 2023: 19-40), 교과서 개발에 관한 연구(Lee, 2023: 41-60)와 각 종교계 사립학교 교사와 관련된 연구(Park, 2002: 71-86; Song, 2017: 75-103; Yoon & Kim, 2009: 131-157; Ham, 2016: 227-260),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학교 종교교육에 관한 연구(Kim, 2025: 17-41; Kim, 2025: 43-64; Lee & Yoon, 2025: 131-157; Lee & Kim, 2025: 1-16) 등의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삶과 종교」 교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원불교 종립학교의 종교교육 현황을 고찰하고 「삶과 종교」 교과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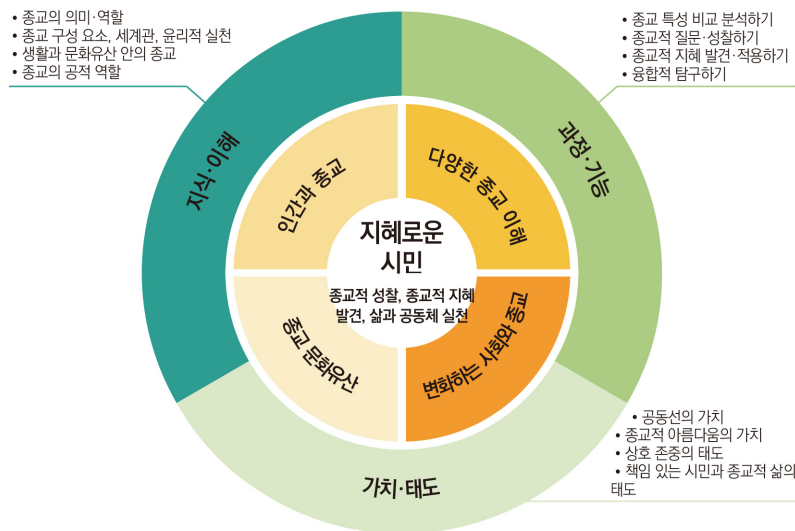
II. 학교 종교교육의 현황

1.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삶과 종교」 교과 주요 내용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특히 강조하는 바는 ‘학생의 삶과 연계한 학습’, ‘깊이 있는 학습’, ‘교과 간 통합’ 그리고 ‘학습 성찰’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1036-1050). 학교 종교교육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삶과 종교」의 교과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진로 선택과목인 「삶과 종교」의 교과 성격 및 목표, 내용 체계 등을 중심으로 기존의 2015 교육과정에서의 「종교학」과의 차이점을 고찰하며 학교 종교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1) 진로선택과목 「삶과 종교」 교과 성격 및 목표

교육부 고시 자료에 의하면, 「삶과 종교」는 학습자의 삶과 관련한 종교적 주제와 사회 현상, 종교 전통에 대한 이해를 통해 종교 문해력을 기를 수 있도록 과목을 설계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교과 성격에 따라 「삶과 종교」 교육과정 설계의 기본 구도를 [그림 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그림 1] 「삶과 종교」 교육과정 설계의 기본 구도

[Figure 1] The Basic Structure of Curriculum Design for 「Life and Religion」
(Ministry of Education, 2022: 91)

「삶과 종교」 과목 운영에서는 학습자가 경험하는 일상의 삶과 생활의 주제들을 학습의 주제와 관련하여 다룸으로써 종교적 차원에서 삶과 사회 현상들을 바라보고, 삶의 의미에 대해 성찰하고, 개인과 사회 공동체 모두에게 선이 되는 종교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실천적인 학습 경험을 포함한다.

이러한 「삶과 종교」 교과목의 목표는 종교가 인간 삶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을 이해하고, 다양한 종교의 전통을 이해하고 분석하며 성찰하는 데 있다고 보며 다음의 네 가지로 그 목표를 밝히고 있다. 첫째, 인간의 삶에서 종교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여 개인의 삶과 사회의 문제를 종교적으로 성찰한다. 둘째, 다양한 종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종교 간의 차이를 알고,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며, 일상의 삶과 사회 변화에 도움이 되는 종교적 통찰과 지혜를 발견하고 익힌다. 셋째, 융합적 탐구를 통해 생활과 문화유산 안에 남겨진 종교적 특성과 종교적 아름다움을 발견·분석하고, 미래를 위한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른다. 넷째, 종교로부터 배운 지혜를 개인의 삶과 사회 변화를 위한 실천에 적용하고, 공동선을 위하여 포용성을 갖춘 시민 의식을 기른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91-104).

이상과 같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종교 교과인 「삶과 종교」는 학문적 의미의 종교가 아니라 개인의 삶과 사회의 문제를 종교적으로 성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종교 교과를 통해 학습자들은 종교적 통찰과 지혜를 배우고 융합적 탐구를 통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길러 공동선을 위하여 포용성을 갖춘 시민 의식을 기르는 진로 선택과목이다.

2) 진로 선택과목「삶과 종교」내용 체계

「삶과 종교」 교과목의 내용은 총 4개 단원과 14개의 성취 기준으로 구성하였다. 단원별 핵심 아이디어와 내용 요소를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범주에서 밝히고 있다. 단원별로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1단원 인간과 종교는 2015 교육과정의 내용과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종교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의미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기존 교육과정과 큰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은 2단원 다양한 종교이다. 2단원에서는 다양한 종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종교의 기원과 역사 그리고 종교의 교리와 의례, 종교 공동체를 여러 종교의 세계관과 여러 종교의 윤리적 실천을 다루고 있다.

3단원은 종교 문화유산에 대해서 다루며 일상에서 발견하는 종교를 중심으로 미술, 건축 음악을 통해 종교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촉진하여 예술 작품 안에 담긴 종교적 상상력과 그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상상력 배양과 융합적 접근을 실행할 수 있음을 기대한다. 4단원은 변화하는 사회와 종교를 다룸으로써 종교의 공적 역할과 인권과 환경 등 종교가 지향하는 공동선을 주요 학습 내용으로 선정하고 있다.

그동안 종교 교과서는 종교의 공적 역할과 책임감보다는 교리 중심의 사적인 영역으로 축소되었었다. 그러나 「삶과 종교」는 종교교육을 통해 개인으로서 성장뿐 아니라 공동체 일원이자

시민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양해야 할 삶의 방식을 배우는 기회를 종교 교과를 통해 학습자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참다운 종교를 식별하는 데 사회의 공동선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며 현대 사회의 주요 문제에 대해 공동선의 가치로 접근하는 태도와 세계시민 의식을 갖추고 실천하는 태도를 중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2. 원불교 중립학교 종교교육의 현황

원불교 중립학교 종교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원불교 교육의 목적과 교육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원불교 중립학교에서의 종교교사 파견과 교육의 형태에 대해서 고찰한 후 교과 운영의 전개 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의 현장에서 종교 교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원불교 교육의 목적

원불교의 소태산 박중빈(朴重彬, 1891-1943)이 교시한 종지(宗旨)는 ‘일원상의 진리’이다. 그가 직접 저술한 『정전』에서는 “일원은 범신불이니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제불제성의 심인이며 일체중생의 본성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즉 원불교 교육의 핵심은 일체중생의 본성이므로 일체 중생 모두가 부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김귀성은 원 불교의 기본적인 입장은 인간은 부처와 같은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존재로 보고 있으며, 교육은 평생토록 이뤄져야 하는 과업임과 동시에 영육(靈肉)이 조화롭게 발달한 전인적 인격을 닦는 과정이라고 밝히고 있다(Kim, 2001: 213-214).

또한 원불교 종교교육은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 방식이 아니라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중시한다. 이에 대하여 김귀성(2016: 83)은 종교적 배경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의미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황화경(2017: 175)은 인간성 회복을 위한 사실적 도덕 훈련으로의 인성적 종교교육과 감사 보은하는 생활적 종교교육, 윤리 도덕을 실천하는 실천적 종교교육, 대중에게 유익을 주는 공익적 종교교육, 인간의 잠재능력을 계발시키는 창의적 종교교육 등을 제시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삶과 종교」는 종교에 관한 지식을 단순히 습득하는 차원을 지양하고 있다. 종교를 알고, 종교로부터 배운 지혜를 삶에서 실천하며, 종교적 경험과 삶을 존중하고, 종교적 가치와 유사 종교의 비종교적 측면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학습을 구성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삶과 종교」의 특징은 원불교 종교교육의 방향과도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원불교 종교교육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삶과 종교」의 방향과 일치하고 있다 해도 원불교 중립학교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학주와 김은영의 연구에서는 고교학점제 기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종교교육은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복수 편성과 학기제 운영, 학점제 운영, 종교교사의 학기별 수업시수 불균형 등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Lee & Kim, 2025: 9-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불교 종립학교에서 종교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삶과 종교」의 방향과 원불교 종교교육의 방향이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또한 「삶과 종교」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습자는 종교가 인간과 사회에 주는 풍요로움을 체험하며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2) 원불교 종립학교 운영 및 종교교과 운영현황

2025년 현재, 원불교는 12개 학교 법인 산하에 6개의 고등교육기관과 19개의 중등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19개 중등 교육기관 중 종교 교과를 선택하고 있는 학교는 원창학원 원광 고등학교와 원광 여자고등학교, 그리고 원광 보건고등학교 세 학교이다. 그 외 다른 학교에서는 ‘마음공부’라는 과목명으로 수업을 진행하거나 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유는 건학이념이 분명한 종립학교에서도 종교 과목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원불교 운영 학교법인과 학교 설립 인가 년 및 소재지의 내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현재 한국에 소재지를 둔 원불교 종립학교 종교교사는 모두 원불교 성직자가 담당하고 있다. 원불교 종립학교 설립 초창기에는 원불교 교정원 교육부에서 파견하는 교리 강사가 종교 교과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 후 정식으로 종교교사를 파견하게 된 계기는 국가 교육과정에 종교 교과가 포함되기 시작한 제4차 교육과정(1981.12~1987.3)부터이다. 그 후 종교 교과명은 「종교」에서 「생활과 종교」 그리고 「종교학」으로 변경되어 2015 개정 교육과정에도 유지되다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삶과 종교」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표 1> 원불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19개의 중등 교육기관 중에서 현재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종교 과목을 선택하고 있는 학원 역시 원창학원이 유일하다. 원창학원 중에서도 2025년 1학기에 「삶과 종교」 교과목이 개설된 학교는 원광고등학교가 유일하다. 현재 원광여고 종교교사는 1학기에는 「인간과 철학」, 「인간과 심리」를 선택과목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원광고등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교과서는 선두 출판사 2022 개정 교육과정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인정(22-세종-22-고교-24-008)교과서다. 그러나 선두 출판사 교과서에는 ‘원불교’에 관한 내용이 단 한 줄도 없음에도 수업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종교교사의 역할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그 외에 원진학원, 영산성지학원, 전인학원, 해룡학원, 원명학원, 삼동학원, 휘경학원 등에서는 「마음공부」라는 과목명이거나 동아리 활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김남희는 그의 연구에서 종립학교 가운데 실제로 종교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가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236개 종립 고등학교 중 114개의 학교만 종교 과목 운영) 종립 학교가 더

<표 1> 원불교 운영 학교명과 소재지

<Table 1> Name and location of Won Buddhism operating school

순	학교 법인명	학교 명	설립인가년도	소재지
1	미주선학대학원	미주선학대학원대학교	2002	미국 필라델피아
2	원불교대학원	원불교대학원대학교	1997	전라북도 익산
3	원광학원	원광대학교	1946	전라북도 익산
		원광보건대학교	1976	전라북도 익산
		원광디지털대학교	2001	전라북도 익산
4	영산학원	영산선학대학교	1991	전라남도 영광
5	원창학원	원광고등학교	1954	전라북도 익산
		원광여자고등학교	1960	전라북도 익산
		원광보건고등학교	1960	전라북도 익산
		원광중학교	1951	전라북도 익산
		원광여자중학교	1960	전라북도 익산
6	원진학원	지평선고등학교	2009	전라북도 김제
		지평선중학교	2002	전라북도 김제
7	영산성지학원	영산성지고등학교	1982	전라남도 영광
		성지송학중학교	2002	전라남도 영광
8	전인학원	한겨레고등학교	2005	경기도 안성
		한겨레중학교	2005	경기도 안성
		헌산중학교	2002	경기도 용인
9	해룡학원	해룡고등학교	1974	전라남도 영광
		해룡중학교	1970	전라남도 영광
10	원명학원	합천평화고등학교	1997	경상남도 합천
11	삼동학원	경주화랑고등학교	1997	경상북도 경주
		한울안 중학교	2017	대구 광역시 달성군
12	휘경학원	휘경여자고등학교	1975	서울 동대문구
		휘경여자중학교	1970	서울 동대문구

이상 자신의 정체성을 종교 과목에서 찾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종교학」으로의 종교 교과목의 변화는 종립 학교로서 정체성의 약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보고 신앙과 문화를 통합하는 종교교육과 그런 교과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Kim, 2011:

44-61).

현재 원불교 종립 중고등학교 총 19개 중 종교 교과를 선택하고 있는 학교는 원창학원 소속 세 개의 고등학교뿐이다. 그만큼 현 제도하에서 종교 교과 운영은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다음 장에서는 앞의 내용을 기초로 「삶과 종교」 종교 교과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 종교 교과 교육 활성화 방안

그동안 학교에서 종교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됐다. 김귀성은 학교의 종교교육 현황을 교과 수업 활동과 종교 관련 활동으로 나누어 조사연구를 진행하였다. 관련 전문 연구자 및 교사의 자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종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실행방안으로 학교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정규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은 물론 정부 및 관계 기관으로 확대해서 제시하였다(Kim, 2013: 134-139). 이러한 연구가 이뤄진 기저에는 그만큼 현행 제도하에서 학교 교육현장에서 이뤄지는 종교교육은 제약이 많아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관련 전문가들과 현장의 종교교사들의 공통된 견해가 있었다.

학교법인 원창학원에서 채택한 2022 개정교육과정에 의한 종교 교과서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인정 교과서이다. 문제는 교과목의 변경이 아니라 2022 개정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또한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과 학교의 부족한 인적 인프라 구성 그리고 건학이념 실천을 위해서는 선택과목을 종교교사가 모두 담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종립학교에서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1~3년 동안 전체 학생 또는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해 오던 종교 교과교육은 고교학점제 기반에서는 더 이상 지속이 어렵게 되었다. 「종교학」에서 「삶과 종교」 종교 교과의 성격이 변화된 것과는 별개로 고교학점제라는 새로운 제도는 종교 교과 운영에 거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종교교과 운영에 관한 갈등 속에 2024년 11월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종립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 실태’를 주제로 인권실태조사가 이뤄졌다. 결과는 의외였다. 많은 학생이 종립학교의 교육과정을 선호하고 오히려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는 점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교육청에서 진행한 조사연구에 관한 자세한 통계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아쉽게도 인권 보호를 이유로 받을 수 없었다. 다만 사전 간담회와 사후 간담회에서 거론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한 ‘공문’(전북교육인권센터-603)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공문으로 내려온 결과에 따라 종교 교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한 종교교육 활성화(종교교육은 인성교육에 도움을 준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북교육인권조례」 제 6조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학교를 방문하고 있다. 2024년 주제는 ‘종립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 실태’였다. 대상은 도내 19개 종립학교였다. 절차는 2024년 11월 8일 2024년 학교 방문 조사 사전 간담회를 갖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권위원회 위원 6명과 인권교육 강사단 그리고 인권 관련 조사 활동 경험자 등 6명 총 12명으로 조사단이 구성되었다. 이후 12명의 조사단은 조별로 지정된 학교를 방문하여 체크리스트 확인과 면담을 거쳐 진행했다. 조사 내용은 총 네 개 항목으로 종교 과목 행사 운영 여부 및 선택권 부여 현황, 종교 과목 및 행사 이외 종교 관련 활동 여부, 종교 과목 및 행사 미참여 학생에 대한 불이익 여부, 넷째 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한 학교 자체 노력 등으로 구성하여 진행되었다.

이후 2025년 2월 20일에 실시된 사후 간담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한 공문(전북교육인권센터-603)에 따르면 도내 19개 종립학교에서 종교의 자유보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희망자만 참여하므로 갈등 요소가 ‘없음’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학교 측에서는 종립학교에서 종교 교과 운영이 올바른 학교 문화 형성에 도움을 주고, 인성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학교폭력 발생률이 낮아서 생활지도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이었다. 학생에게는 명상으로 집중력이 향상되고, 학교에 성직자가 상주해 있으므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심리적 안정을 얻는 점을 장점으로 들었다.

이 조사 연구가 실시된 배경에는 ‘2023년 학교 구성원 인권실태조사’에서 중·고등학생 대상 종교적 신념 강요 관련 질문에 대해 응답 학생의 11.2%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전북학생의회에서는 관내 종립학교를 대상으로 ‘종교에 대한 자유 관련 실태조사 및 개선’을 정책제안(민주시민교육과-13890, 2024.9.2.)을 통해 요구하였다.

그런데 결과는 “정책 권고 등 후속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발표였다. 오히려 종교 시간을 통해 다양한 종교를 접할 수 있어서 세계 시민으로서 성장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종교 교과 운영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여 보고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종립학교에 인성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가톨릭계 동성고등학교가 교육감 승인 과목 인정도서 「생활과 인성 I, II」를 승인받아 2025학년도 1학기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2. 표면적 교육과정(교과 + 비교과 영역)을 통한 종교교육 활성화(종교교사의 역할 재정립 필요)

학교 종교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교교사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즉 중

교교사는 특정 종교의 교의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편적 교육으로의 「삶과 종교」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점이다. 현재 원광고등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선두 출판사 「삶과 종교」 교과서에는 ‘원불교’에 관한 내용이 단 한 줄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불교 종립학교에서 교과서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편적 교육으로서 종교교사의 역할에 시사점을 준다.

학습자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종교 교과인 「삶과 종교」를 통해 특정한 종교의 교의를 배우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의 내용과 의미를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종교를 탐구하며 종교가 갖는 공적 역할과 책임에 대해 배우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종교적 경험을 갖게 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개인의 삶을 종교적으로 성찰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교양을 갖추어 학습자들의 삶을 돕는 꼭 필요한 과목으로 종교 교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은 기존의 영역과 활동으로 제시되었던 영역별 활동 체계표를 영역, 활동, 예시 활동이라는 세 수준으로 구분하여 연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하였다. 학교에서는 학교급과 학년(군) 및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여 활동을 영역별로 제시하거나 영역을 통합한 교과와 연계한 활동 등을 창의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여기에 포함되는 활동들로는 자율 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활동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규 교과목인 「삶과 종교」 교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양방향으로 운영하면서 종교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다. 즉 자율자치활동에서는 사제동행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고, 명상이나, 요가, 마음공부, 심심풀이 인성동아리, 봉사활동, 합창단, 종교의식 혹은 차명상 동아리 등 다양한 동아리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자발적인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교과에서 배운 종교적 지식과 이해를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해 종교적으로 탐색해 볼 수 있고, 다양한 종교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 나아가 종교의 좋은 가치를 실행하며 공동선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습자의 성장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3.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한 종교교육 활성화

현재 원창 학원의 모든 종교교사는 원불교 성직자이다. 종립학교에서 종교 교과를 담당하는 종교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며, 학습자들과 학교라는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잠재적 교육과정은 학교의 물리적 조건, 지도 및 행정적 조직, 사회 및 심리적 상황을 통하여 학교에서는 의도하고 계획을 세운 바는 없으나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에 은연중에 갖게 되는 경험을 말한다.

김귀성도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한 종교 교양 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만큼 잠

재적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태도, 신념, 가치관 등의 정의적 영역에 영향을 주며 학교의 문화 풍토, 교사의 인격적 감화 등을 중시한다. 그러나 이런 측면들이 항상 긍정적 기대효과만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때로 부정적 영향도 공존함을 유의해야 한다. 잠재적 교육과정을 염두에 둔 종교교육 프로그램은 “학교 역사관 만들기, 종교적 형상물 세우기, 교내 종교를 바탕으로 한 명언 세우기, 학교를 빛낸 얼굴 알아보기 등”을 들 수 있다(Kim, 2013: 137-138).

원불교 종립학교 종교교사들은 교과 수업뿐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 지원을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에는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만 한 명의 상담교사가 전교생을 담당할 수 없는 현실에서 원창 학원에 파견된 종교교사는 성직자로서 학습자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교사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학부모에게는 신뢰를 받고 있다. 잠재적인 교육과정 속에 스며들어 있는 원불교 정신은 종교교사를 포함한 학교 풍토, 종교 문화 등 다양한 형태로 학생들에게 깊은 안정감을 주어서 인성교육이 강한 학교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원불교 종립학교의 잠재적 교육과정은 학습자 개인의 종교 성향과 관계없이 높은 신뢰를 얻고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종립학교에서 종교교육 활성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4.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종교교육 활성화 (종립학교 교사들의 연대와 협력 필요)

우리나라의 초중등 공교육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분권화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를 지원하고 촉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가 교육과정(전국 공통 교육과정의 일반적인 기준과 내용), 지역 교육과정(국가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지역의 특수성과 학생의 교육적 필요를 반영하여 시도교육청 등이 개발·운영), 학교 교육과정(국가와 지역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 주민의 관심과 교육적 필요를 반영하여 학교에서 개발·운영) 간 주체별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교사의 경우 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포함되어 그 역할이 명시되어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19). “국가 수준에서 제시하는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되 교사가 교육과정 전문성(curriculum literacy)을 발휘하여 새롭게 수정·개발한 교육과정이며, 주로 교실 속 학생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에서 실제로 실행되는 교육과정”, 그리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토대로 주어진 교육과정을 재구성” 등과 같은 정의들을 통해 교육과정 내에서 교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밝히고 있다(Kim, 2017: 297).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따라서 교원의 역량과 의지는 교육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종교 교육 역시 교사의 역량과 의지가 「삶과 종교」 교과 교육의 질을 좌우할 것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종교교사는 교사의 신념과 가치관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삶과 종교」 1단원에서는 종교와 영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실제 학습자들의 영성과 관련하여 삶에 꼭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할 수 있

다. 명상 활동, 좋은 습관 들이기 유무념 대조 마음공부, 심심풀이(心心풀이), 원창학원 대표 인성교육 프로그램인 귀공주, 귀공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4단원 변화하는 사회와 종교에서는 지역의 종립 사학들과의 연계 교육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종교교사들이 연합하여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각 종교의 덕목과 평화를 향한 공동선, 그리고 인권과 환경 등의 영역에서 학습자들은 자연스럽게 종교적 경험을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각기 다른 종교적 배경을 가진 종교교사들이 협력하여 종교가 가진 공동선을 추구하며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함께 나아갈 때 학교 현장에서는 「삶과 종교」 교과 교육의 활성화가 이를 수 있을 것이다.

I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원불교 종립 학교를 중심으로 종교교육의 현황을 고찰하며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진행한 ‘종립 학교에서 종교의 자유 보장 실태’ 조사연구를 기반으로 종교 교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종교교과인 「삶과 종교」 교과의 성격과 목표와 내용체계를 살펴보고 원불교 종립 학교 종교교육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원불교 종립 학교에서의 종교 교과 교육 운영에 대해 고찰하며 교과 활성화를 위하여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진행한 ‘종립학교에서 종교의 자유보장 실태’조사연구 결과 종립 학교의 인성교육은 학생들에게 매우 유익하며 종립 학교에서 인성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것을 요청하였다.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한 종교교육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가톨릭계 동성고등학교가 교육감 승인 과목 인정도서 「생활과 인성 I, II」를 승인받아 사용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둘째, 표면적 교육과정(교과+비교과)을 통한 종교교육 활성화를 위해 「삶과 종교」는 특정 종교의 교의를 가르치는 교과목이 아니라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보편 교육이라는 것에 방점을 두었다. 이를 기반으로 종교 교과와 비교과 영역인 창의적 체험 활동과의 양방향 활동을 제시하였다. 종교적 지식과 이해를 기초로 삶의 문제를 종교적으로 탐색하며 종교적 지혜를 갖추어 다양한 종교를 존중하는 세계 시민으로서 꼭 갖추어야 할 교양 교육이라는 인식의 확산을 통한 종교 교과의 활성화 방안을 언급하였다.

셋째,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한 종교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의 문화 풍토 및 종교 교사의 인격적 감화, 혹은 교내에 종교 관련 명언 세우기 등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학습자들의 전인

적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교과와 활성화할 제언하였다.

넷째, 자율성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교사가 교육과정 전문성을 발휘하여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능력을 통한 교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삶과 종교」 교육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종교교사의 역량과 의지라 보며 교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성교육이 강한 종립학교 종교교사들이 연대하여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발달에 적합한 인성교육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함께 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두 가지 문제가 남는다. 첫째,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택권을 위한 과목은 누가 담당해야 하는가? 현장에 대한 인력 지원이나 구조적 변화 없는 새로운 제도는 결국 담당 교사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둘째, 종교교육이 종립학교에만 필요한 과목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종교교과명인 「삶과 종교」는 학습자들의 실생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삶과 종교」는 종교 간의 차이를 알고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과목이며, 일상의 삶과 사회 변화에 도움이 되는 종교적 통찰과 지혜를 발견하고 익히는 과목이다. 이러한 삶의 가치와 태도는 종립학교 학생들에게만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김경이(2025)의 연구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견지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삶과 종교」 교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종교를 초월해서 종교의 본질을 지키며 모두의 공공선을 위하여 지역의 종립학교 종교교사들이 연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시범학교 운영에 관한 연구는 다음 과제로 남기며 아울러 본 연구는 원불교 종립학교를 중심으로 고찰한 것임을 연구의 제한점으로 밝힌다.

References

[Primary Sources]

- 원불교 정화사 (1977). 원불교전서. 익산: 원불교출판사. (Translated in English) Wonbulgyo Jeonghwasan (1977). *The Scriptures of Won Buddhism*. Iksan: Won-Buddhism Publication.

[Secondary Sources]

- Ham, Y. J. (2016). A Study of the Critical Roles and Effective Support Ways for School Chaplains in Christian Private School. *Bible and Theology*, 77, 227-260.

- Hwang, H. K. (2017). A Study on How to Improve Religious Education in Won-Buddhism in the 21st Century. *Religions of Korea*, 41, 157-179.
- Kim, G. S. (2001). Wonbuddhism and Cultural Studies of the University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12, 201-227.
- Kim, G. S. (2016). A new vision for Religious Education in WonBuddhism: focused on it's reflection and prospect.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50, 71-90.
- Kim, G. S., Ryu, S. M., & Ko, S. Y. (2013). A Study on Religious Education Revitalization Pla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41, 121-144.
- Kim, K. Y. (2023). A Study on 'Religion in Human Life' According to the 2022 Revised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73, 19-40.
- Kim, K. Y. (2025). Liberal Education and Religious Education in High School: Focusing on the 'Religion in Life' Textbook in School Religious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81, 17-41.
- Kim, N. H. (2011). A Study on Development of Catholic Textbooks in Concordance with Glocalism.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37, 43-64.
- Kim, Y. O. (2025). A Study on Reconceptualization of Religious Education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Revised 2022 Curriculum: In the Context of Religious Education in Catholic School.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81, 43-64.
- Ko, S. Y. (2020). Religious Education of Won-Buddhism as a Liberal arts: Focused on the case of Wonkwang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64, 145-170.
- Lee, J. C. (2023). Changes in Religious Subjects and the Direction of Textbook Policy according to the Revision of The 2022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73, 41-60.
- Lee, J. C. & Yoon, T. H. (2025). 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Religious Education in High Schools under the Credit-Based Curriculum: Focusing on Protestant Christian Schools.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81, 65-82.
- Lee, H. J. & Kim, E. Y. (2025). 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Religious Education under the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Focusing on a Buddhist-Affiliated High School.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81, 1-16.
- Park, S. Y. (2002). The Buddhist View of a Teacher: The Path of Bodhisattva with Compassionate Vows.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14, 71-86.
- Song, S. J. (2017). Changes in Perception of Preliminary Religious Teacher and Suggestions to Teacher Preparation Program from Student Teaching Experience. *Christian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52, 75-103.

Yoon, S. W. & Kim, B. C. (2009). A Study of the Teachers' Culture in a Mission Academic High School.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29, 131-157.

고병철 (2012). 한국 중등학교의 종교교과교육론. 서울: 박문사. (Translated in English) Ko, B.C. (2012). *Theory of Religious Subject Education in Korean Secondary Schools*. Seoul: Pakmwunsa.

교육부 (2022). 고등학교 교양 교과 교육과정(고시 제2022-33호 [별책 19]). 세종: 교육부. (Translated in English) Ministry of Education (2022). *National Curriculum Liberal Arts Subjects for High schools (#2022-33 [Annex 19])*. Sejong: Ministry of Education.